
유교철학에서 보는 자살의 문제

김 성 기 (성균관대 유학·동양학과 교수)

김 성 기 (성균관대 유학·동양학과 교수)



● 학 력

성균관대학교 유학(儒學) 학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동양철학 석사

중국문화대학교대학원 철학 박사

● 경 력

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 유교철학전공 조교수

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 유교철학전공 부교수

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장 겸 유학대학원장

[現] 성균관대 유학대학 유학·동양학과 교수

● 저 서

- 지금 여기의 유학

유교철학에서 보는 자살의 문제

김 성 기

(성균관대 유학·동양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인에게 드리워진 암울한 그림자는 마침내 ‘자살’이라는 가장 비극적인 유행병을 낳게 되었다. 오죽했으면 혹자는 ‘자살공화국’이라 명명하였을까.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해마다 1만 2천여 명을 상회한다. 하루 평균 40명을 상회하는 고귀한 생명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도 25.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4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은 수치다.

- OECD 자살률 세계1위
- 청소년 자살률 1위
- 노인 자살률 1위

그 내용을 보면 더욱 놀랄만하다. 청소년, 노인, 장년을 가릴 것 없이 골고루 1위를 한 점이다. 연령을 불문하고 전 계층에서 골고루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분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하여간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감고 고개를 세차게 가로 저으며 부정하고 싶을 따름이다.

가정은 해체되고, 날개 잃은 지 오랜 줄도 모르고 초중고 아이들이 옥상에서 뛰어내린다. 직장에서 내몰리고, 결혼하는 딸을 보며 웃으며 축하하기는커녕 혼수 걱정에 자살을 택한 아버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자살하는 노인들.....

대한민국의 오늘, 유행병처럼 번지는 자살 소식으로 암울하다.

개인이든 국가든 비극의 극점은 비극의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는 점이다. 무엇이 우리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는가.

힘주어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경제개발의 역군이 되어 세계에서 자랑스런 경제대국을 이루는데 성공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이 암울한 그림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그 연유를 찾아야 할 것인가?

“OECD 1등 자살률, 거대한 질문 앞에 선 한국”

어느 한 언론의 표제이다.

이 거대한 질문이 우리 모두 앞에 놓여있고, 각자 나름의 답변을 내놓아야 할 시점임을 자각한다.

지금, 오늘 하루만도 거의 40여명의 고귀한 생명들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곤혹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도대체 이 비극의 근원은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고민을 함께 하고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고통일 것이다.

2. 유교의 생사관

유교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공자의 생각은 어떠하였을까?

실은 삶과 죽음에 대한 공자의 생각도 우리 보통 인간과 다르지 않다.

인간에게 예나 지금이나 죽음은 무엇보다 두려운 일이다. 그리고 어느 시대든 죽음은 슬픔과 비애를 남긴다.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에서도 죽음의 애절함이 잘 묻어난다.

그대 그 물을 건너지 마오(公無渡河)

그대 그에 물을 건넜네(公竟渡河)

물에 빠져 죽고 말았으니(墮河而死)

아아 당신을 어찌할거나(當奈公何)

<공무도하가>는 바로 남편의 죽음을 본 여인의 슬픈 노래이다.

그러나 이 노래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까닭은 역시 죽음과 그에 따른 슬픔 때문이다.

자식을 잃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은 人之常情이다. 절망감과 애통함.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 안회가 죽었다.

“아! 슬프도다.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고 절규한다.²⁾

2) 『論語』 「先進」：顏淵死，子曰，噫。天喪予 天喪予。

또 그 절규가 얼마나 애통했던지 제자들이 공자의 애통함이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공자는 반문한다. “애통해한다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애통해 하겠느냐?”³⁾라고 답변한다.

공자의 생사에 대한 여느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선비 이순신 장군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원균의 모함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백의종군을 하던 장군에게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
또 이순신 장군이 가장 슬퍼하였던 죽음은 바로 아들 勉의 죽음이었다. 이 슬픈 가족의 죽음에 그는 비통해 한다.

공자에게서나 조선의 선비 이순신 장군에게서나 죽음의 의미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인지상정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 공자와 유교, 조선의 선비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공자는 제자들이 죽음에 대하여 물었을 때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는가.” 또 신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 물었을 때도 “사람을 잘 섬기지도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

공자의 이런 생사에 대한 견해는 결국 생을 통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유교의 전통이 된다. 유교와 다른 종교 철학과의 차이점은 유교에서는 죽음과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생을 통해서 죽음을 이야기하라”, “삶에 충실히 사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생각된다.

공자는 참다운 생을 “도를 알기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를 깨닫고 실천하면 지금 당장 죽어도 좋다는 각오이다.

“朝聞道夕死可矣”

따라서 그에게는 “어진 이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생명을 바쳐 충성하는 것”이 배움의 핵심이 되고 이것이 후일 선비들의 배움의 상징적 지표가 된다.

공자의 仁義를 이어 맹자는 捨生取義의 사상으로 발전시켜 후일 생사관에 있어서 조선 선비들의 문화적 한 특징을 이룬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보다도 도가 중요한 것이다.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삶을 구하느라 仁을 해치지 아니하느니, 몸을 바쳐서라도 仁을 이룬다.”⁴⁾

맹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捨生取義의 길을 택한다.

3) 『論語』 「先進」：顏淵死 子哭之慟 從者曰 子慟矣。曰有慟乎 非夫人之爲慟 而誰爲。

4) 『論語 衛靈公』：子曰志士仁人，無求生以害仁，有殺身以成仁“

사는 것도 내가 바라는 바이고(生亦我所欲也)
의로움도 내가 바라는 바이지만(義亦我所欲也)
두 가지를 겸할 수 없다면 (二者不可得兼)
생을 버리고 의를 취할 것이다(捨生而取義者也)⁵⁾

捨生取義

이는 한국 선비문화의 독특한 특징으로 자리잡게 된다.

성삼문은 단종복위를 꾀하다가 죽음을 맞게 된다. 그의 죽음은 어쩌면 스스로 택한 길이 아니었던가. 성삼문은 죽으러 나갈 때 좌우에 있던 옛 동료들을 돌아다보며, “너희들은 어진 임금을 도와 태평성대를 이룩하라. 이 성삼문은 돌아가 옛 임금을 지하에서 뵈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성삼문은 대여섯 살쯤 되는 딸이 있었는데, 수레를 따르며 울며 뛰었다. 성삼문이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내 자식은 다 죽을 것이고, 너는 딸이니까 살 것이다”라며 달랬다. 집안의 종이 울며 술을 올리자 몸을 굽혀서 마시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님이 주신 밥 먹고 님의 옷 입었으니
일평생 한 마음 변할 수 있으랴.
이 죽음은 충과 의를 위함인데
현릉의 푸른 송백 꿈엔들 잊으랴.

단종 복위 사건이 실패에 돌아가고 거사에 연루된 인물들은 모두 죽음을 당하거나 자결하였다. 성삼문을 비롯하여 박팽년·유응부·이개는 작형(灼刑:단근질)을 당하였고, 뒤에 온 몸을 찢어서 죽이는 거열형을 당하였다. 하위지는 참살당하였으며, 유성원은 잡히기 전에 자기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자살하였다. 그들도 결국은 사생취의(捨生取義)의 길을 택한 것이다.

성삼문과 아버지 성승은 능지처참을 당하였고, 그의 아들 5형제와 아우 삼고, 삼빙, 삼성 등 남자는 젓먹이까지도 살해되는 멸문지화를 겪었다. 가산은 몰수되고, 처 차산과 딸 효옥은 운성부원군 박종우(朴從愚)의 노비가 되었다. 후손으로는 딸 효옥 외에 박림경에게 시집간 맏딸과 유자미의 며느리가 된 손녀, 엄씨에게 시집간 딸 등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을 뿐이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절명시가 처연하다.

5) 『孟子』 「告子上」

둥 둥 둥 북소리는 사람 명을 재촉하는데
머리 돌려 돌아보니 해는 이미 기울었네
머나먼 황천길에 주막 하나 없으니
오늘밤은 뉘 집에서 재워줄꼬.

이순신 장군도 마지막 퇴각하는 적들을 죽기를 작정하고 싸우기로 결정한다.

『이 충무공 행록(行錄)』은 명나라 장수 진린이 퇴각하는 왜군을 순순히 보내주자고 했으나 이순신은 “한번 죽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 거절했다고 전한다. 이순신은 전날 밤 자정 하늘에 ‘이 적을 제거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此讎若除 死則無憾)’라고 기도했다. 도망가는 적을 향해 죽음을 각오한 것이다.

후일 수군의 해산을 명하는 선조에게 죽음을 각오한 상소를 올린다.

“임진년 이래 오륙년이 지나는 사이에 왜적이 감히 전라도와 충청도를 바로 점령하지 못한 것은 오직 우리 수군이 바닷목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전선 열두 척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항거해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일 수군을 철퇴한다면 적들이 만 번 다행으로 여길 뿐 아니라 호서를 거쳐 한강까지 쳐 올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걱정하는 바입니다. 전선의 수가 비록 적기는 하나 신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6)

"이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싸움이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 하면 산다"(必生即死,必死即生)

이처럼 조선의 선비들은 옳은 일을 위하여서는 죽음조차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항로의 제자인 유인석(柳麟錫)은 을미의병(1896)을 일으키면서 선비의 저항정신을 밝혔다. 곧 그는 “죽음은 선비의 의리이다.”라는 신념을 제시하였다.

이 시대 선비들은 의병을 일으키거나 자결을 하여 지조를 강경하게 드러내며, 또는 산속으로 은거하거나 해외로 망명하여 전통제도를 고수함으로써 선비의 절의정신을 발휘하였다.

한말의 선비 최익현은 의병운동 끝에 일제에 의해 대마도로 끌려가 단식 끝에 스스로 죽음을 택하였다. 최익현은 죽음이 임박해지자 임병찬에게 <유소(遺疏)>를 구술, 다음과 같은 여한(餘恨)을 남겼다.

“신의 나이 74살이오니 죽어도 무엇이 애석하겠습니까. 다만 역적을 토벌하지 못하고 원수를 갚지 못하며, 국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강토를 다시 찾지 못하여 4천년 화하정도가 더럽혀져도 부지하지 못하고, 삼천리 강토 선왕의 적자가 어육이 되어도 구원하지 못하였으

6) 이충무공전서, 권9

니, 이것이 신이 죽더라도 눈을 감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강제로 그의 입에 음식을 넣었으나 모두 뱉거나 입을 열지 않고 저항하였으며, 1907년 1월 1일 대마도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이처럼 조선의 선비들은 捨生取義의 삶을 택하고 절의를 지켰던 것이다. 그들이 의를 위하여 죽음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공자가 말한 생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에서 그 연유를 찾아볼 수 있고 선비들에게서 삶과 죽음이 하나인 生死一如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3. 유교에서 본 자살의 모습

이상에서 선비들은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서는 구차한 삶보다는 의로운 죽음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선비들의 의리정신에서는 죽음에 대한 슬픔과 허무, 좌절보다는 오히려 도를 추구하고 그를 실천하는 구도자의 정신을 느낄 수 있다.

한국의 유교선비들이 보여준 비장한 죽음의 한 모습에서 어렵지 않게 유교의 죽음관을 찾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따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할 것이다.

사실 유교에서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부모의 유체이니만큼 이를 손상하지 않고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효도로 여겼다.⁷⁾

도와 의를 위해 목숨을 건 선비들의 일화는 국가에 닥친 재난에 의한 비상시의 일이지만, 평시의 개인의 죽음은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행복한 죽음은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의 모습은 이미 유교의 삶과 죽음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오늘의 삶과 죽음을 일별해보자.

지난 2010년 한 장애아 아들을 둔 일용직 아버지가 아들에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받게 해 주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졌다. 그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일자리를 못 구해 힘들다... 아들이 나 때문에 못 받는 게 있다. 내가 죽으면 동사무소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 아들이 사랑한다. 내 뼈는 화장해서 그냥 공원에 뿌려달라"

7) 『孝經』 ‘汝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슬픈 주검의 유서의 몇 구절이다. 장애아들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받기 위해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물로 바쳤다.

또 2002년 4월 19일 경남 마산에서 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으로 괴로워하다가 투신 자살한 A(15)군의 유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 사람 좀 괴롭히지 마라. 샤프를 훔쳐가고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자는데 먼지 묻은 과자를 입에 넣고... 귀신이 돼서라도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2011년 12월 20일 오전 8시,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7층 거실.

이번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은 A4 용지 4장에 유서를 적어놓고 베란다 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말았다.

이 학생의 자살 유서에는 친구들이 괴롭힌 폭력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혼자 가슴앓이 하는 아이의 절절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간추린 유서 내용이다.

"제가 그동안 말을 못했지만, 매일 라면이 없어지고, 먹을 게 없어지고, 갖가지가 없어진 이유가 있어요. 제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하고 ○○○이라는 애들이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절 괴롭혔어요. 12월에 들어서 자살하자고 몇 번이나 결심을 했는데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생각나서 저를 막았어요.

저는 제 자신이 비통했어요. 사실 알고 보면 매일 화내시지만 마음씨 착한 우리아빠, 나에게 베푸는 건 아낌도 없는 우리엄마, 나에게 잘 대해주는 우리 형을 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일찍 철들지만 앓았어도 저는 아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매일 장난기 심하게 하고 철이 안든 척 했지만, 속으로는 무엇보다 우리 가족을 사랑했어요. 아마 제가하는 일은 엄청 큰 불효인지도 몰라요.

저는 정말 엄마한테 죄송해서 자살도 하지 않았어요. 어제(12월 19일) 혼날 때의 엄마의 모습은 절 혼내고 계셨지만 속으로는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부모님한테나 선생님, 경찰 등에게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개들의 보복이 너무 두려웠어요. 대부분의 학교친구들은 저에게 잘 대해줬어요.

항상 저를 아껴주시고 가끔 저에게 용돈도 주시는 아빠, 고맙습니다.

매일 제가 불효를 했지만 웃으면서 넘어가 주시고, 저를 너무나 잘 생각해주는 엄마, 사랑합니다.

항상 그 녀석들이 먹을 걸 다 먹어도 나를 용서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던 우리 형, 고마워.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매일 남몰래 울고 제가 한 짓도 아닌데 억울하게 꾸중을 듣고 매일 맞던 시절을 끝내는 대신 가족들을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그리고 제가 없다고 해서 슬퍼하시거나 저처럼 죽지 마세요. 저의 가족들이 슬프다면 저도 분명히 슬플 거예요. 부디 제가 없어도 행복하길 빌게요.

-우리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막내 ○○○ 올림-

P.S. 부모님께 한 번도 진지하게 사랑한다는 말 못 전했다지만 지금 전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긍정적이며 수용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지금 죽음으로써 가장 격렬하게 이 체제를 들이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자살한 대구 중학생은 유서에서 "이제 여한이 없다"고 했다. 열네 살 아이가 '여한이 없다'고 하는 사회, 그러나, 그게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성적이 2등인 꽃다운 여고생은 1등이 못되었다는 조바심에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한 언론은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살 행렬은 인류사의 그 어떤 사회, 그 어떤 문화에 견주어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유독 한국사회에서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이러니하다"며 우리 사회의 폭력 구조를 꼬집었다.⁸⁾

과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서 제도적이고 구조적으로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4. 성찰의 필요성

우선, 유교가 말하려고 하는 생사관에서 이 생애의 의미를 반추할 필요가 있다.

공자는 생을 충실히 꾸려 나아갈 때에 죽음의 세계를 참답게 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선비들이 임진왜란, 한말 외세침략 등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捨生取義의 불굴의 투지로 나타나게 된다. 유가적 사생관이 자살이나 죽음보다 생을 대하는 자세에서의 성실함과 이 세상에의 관심을 강조하고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 세상에의 관심'을 고취한다는 점이다.

8) 프레시안, 2012년 10월 24일자, "열네 살 아이가 '여한이 없다'며 자살, 그런데도..."

또, 조선 선비들의 捨生取義 정신은 이러한 삶이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지만 후일 이 죽음은 승화의 차원으로 전환되어 못사람들의 희망과 빛의 근원이 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 선생이 일제에 끌려가 돌아간 후에 민생들의 눈물과 추도행렬로 운구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왜놈 땅에서 나오는 물 한 모금 쌀 한 톨 입에 넣지 않았다는 사람 왜놈 흙 밟을 수 없다며 조선 땅 흙 뿌려 밟고 갔다는 사람 그렇게 대마도에서 죽은 몸이 바다 건너 고국으로 돌아왔다 길가에 늘어선 백성들 운구를 가로막고 울부짖었다 산천초목도 떨면서 제 몸들을 짜내 아픈 비를 뿌렸다 상여는 하루 십리도 나아갈 수 없었다 상주 백성들이 더욱 두려운 왜경들은 널을 기차에 태우고 도망치듯 이 고을을 떠났다 낮은 산들이 높은 산들보다 더 힘차게 뻗어갔다 한 사람 죽은 몸뚱어리 가는 길 온 나라의 슬픔이 다독거렸다”(이 성부의 <면암선생 운구가 기차에 실려 갔다>)

이 절의정신을 통한 인의의 실천이 살신성인을 이루어 빛이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유행병처럼 만연하는 자살현상에 대하여 사람들은 백약이 무효이고, 편작과 화타가 나타난다 한들 치유불가능의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한탄한다.

이 알 수 없는 고통의 시작은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하고 있는 것일까? 어찌면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 탓이 아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천박한 자본주의의 저무는 끝자락을 목도하고 있는 것 같다. 경쟁제일주의, 성적제일주의, 배금사상, 물질만능주의 등등, 우리는 지금 이상적이지 않은 사회주의의 저무는 마지막을 목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마지막 세기말적 대결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찌면 그들은 학교 폭력에 저항하고, 세계적 경제모순에 저항하고, 근대성의 보편가치에 저항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동안 우리민족은 좌와 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끊임없는 뉴 라이트와 뉴 레프트를 충실히 받들며 살아왔다. 이런 충실한 삶 덕분에 세계에서 유일한 이념의 분단국으로 남아 세계인의 연민의 눈길을 받고 있다. 지금 우리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후손들의 미래를 맡길만한 가치가 무엇인지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절망의 시작도 끝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그 둘의 지향점은 모습은 달라도 바로 성공이나 실패냐, 이기느냐 지느냐의 패러다임으로 단순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우리의 잘못 끼워진 단추를 살펴볼 때가 되었다. 마이클 샌델은 말한다. “돈으로 안되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세상”이라고. 심지어는 공항의 줄서기, 놀이공원의 줄서기에도 돈의 위력은 무소불위의 위력을 떨치고 있다.

사마천은 절규하였다. “하늘은 과연 옳은가” 이것은 도척의 삶이 세속적 성취와 성공의 잣대로 평가되는 데에 대한 항거의 절규이었으며, 전혀 다른 삶의 평가의 기준이 있음을 확신한 자기선언에 다름 아니다.

즉, “성공이냐, 실패냐”의 세속적 평가 패러다임에 대한 “옳은가 그른가”란 또 다른 패러다임의 제시이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은인들의 “그것이 불가능한 줄을 알면서도 해보려는 자들”이란 조소를 받으면서 스스로 자임한 삶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공자에게는 단순히 성공이냐 실패냐가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짜야 할 거대한 패러다임의 기초골격이다. 그들이 꿈꾸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다. 사람들이 목 빼고 기다리는 것은 어찌면 전혀 다른 그 무엇인지도 모른다. 돈으로 안되는 것이 있는 세상. 옳고 그름이 있는 세상. 이제 삶의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우리의 젊은이와 아이들, 어머니와 아버지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살려낼 수 있으면 싶다.

이순신 장군이 그러했고, 세종대왕이 그러했고,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김창숙 선생이 그러했다. 그리고 이루 셀 수 없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다. 성공이냐 실패냐와는 다른 패러다임이고,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신과 실행이었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자살의 문제는 그야말로 답변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이전의 잣대인 청소년, 노인들의 나약성을 지적하는 것은 정확한 접근이 아니라고 본다. 자살은 미화할 수는 없지만 과연 그리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자살의 동기가 도대체 어디서 연유하는가를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고민은 더욱 커진다.

우리는 그들이 택한 길을 미화하고 권장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죽음은 승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학의 선비들의 죽음이든, 현대의 삶을 사는 고단한 모든 사람이든 어느 면에서는 시대의 부조리, 역사성과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 때문이다.

그 죽음의 의미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된다. 자살현상을 사회현상의 종합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처방하여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살공화국의 총체적, 사회 구조적 모순과 병폐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